

종교계 사회복지의 현황과 원불교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제언

이원식 교수

1. 종교계의 사회복지시설 운영현황

1) 개신교의 사회복지

개신교는 1885년 선교사 엘런이 최초의 근대식병원 광혜원을 설립한 것을 필두로, 1905년 평양맹아학교를 세웠으며, 근대교육을 위하여 경신, 연희, 배제, 이화, 고아성, 숭덕, 정의, 숭실을 설립하였고, 1950년대까지 활발한 사회복지활동을 전개하였으나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 정부와 기독교 외의 민간 법인들이 주도하는 형태로 변모하게 되고 개신교 교단별로 교단의 선교방법의 정체성과 맞물려 특징적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¹⁾

개신교는 다양한 교단들의 연합체이며 기독교 신앙을 가진 개인들의 사회복지 활동이 분산된 형태로 실천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통계적 수치를 도출하기가 매우 곤란하다.²⁾

본 연구에서는 ○○○의 조사 자료³⁾를 근거로 하여 운영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교회에서 운영 ·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 운영 분야

교회에서 운영 ·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 운영분야에서 전체 응답 교회 410곳 중 23% 이하만이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운영시설 분야는 아동복지시설(23.2%), 노인복지시설(11.0%), 청소년복지시설(7.6%)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세군은 다른 교단보다 청소년 대상의 복지시설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운영하고 있었고 기장은 다른 교단보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1-1> 소속교회 사회복지시설 운영 분야

(단위: %, 명)

구분	예장 (합동)	예장 (통합)	기장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구세군	전체
아동복지시설	23.2	19.8	22.2	34.8	29.0	14.0	17.6	23.2(95)
청소년복지시설	7.1	5.6	-	8.7	6.5	8.0	29.4	7.6(31)
노인복지시설	7.1	8.7	27.8	14.5	16.1	8.0	17.6	11.0(45)
장애인복지시설	5.1	-	11.1	1.4	3.2	2.0	-	2.4(10)
여성복지시설	2.0	1.6	-	2.9	-	2.0	5.9	2.0 (8)
부랑인복지시설	2.0	1.6	-	-	6.5	2.0	-	1.7 (7)
사회복지관	2.0	1.6	-	4.3	-	-	-	1.7 (7)
기타	13.1	14.3	11.1	15.9	6.5	14.0	17.6	13.7(56)

(2) 사회복지활동에 주로 사용하는 시설

교회에서 사회복지활동을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시설은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이 교회 및 부대시설이었다. 교회가 운영하는 복지시설을 사용하는 교회는 10.6%에 불과하다. 이는 교회가 운영하는 복지시설이 많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기타의 시설을 사

1) 손병덕. 전국 복지시설의 운영주체 분석에 의한 종교·교단별 사회복지사업활동 현황조사 그리고 한국교회사회복지의 과제. 충신대 논총. 2004.

2) 노득용. 한국 민간사회복지 체계속에서 종교 사회복지의 과제.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2005.

3) 기독교 7개 교단 소속 교회를 대상으로한 조사

용하는 교회는 전체의 15.2%로 나타났다.

교단별로는 구세군의 경우 다른 교단에 비해 교회 및 부대시설이나 교회가 운영하는 복지시설 이외의 다른 곳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고, 예장 합동측은 다른 교단에 비하여 교회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1-2> 사회복지활동에 주로 사용하는 시설

(단위: %, 명)

	예장 (합동)	예장 (통합)	기장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구세군	전체
교회 및 부대시설	91.8	69.5	86.7	70.8	70.4	66.7	46.7	74.2
교회운영 복지시설	1.4	12.6	13.3	15.4	11.1	12.8	13.3	10.6
기타	6.8	17.9	-	13.8	18.5	20.5	40.0	15.2
계 (N)	100.0 (73)	100.0 (95)	100.0 (15)	100.0 (65)	100.0 (27)	100.0 (39)	100.0 (15)	100.0 (329)

(3) 지역 내 타교회와의 관계

지역 내 타교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활동과 관련하여 지역사회내의 다른 교회와 관계가 협조적이라는 교회가 46.1%로 나타났고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곳은 4.5%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타교회와의 관계가 매우 소원하다는 31.8%, 소원하다는 17.6%로 나타나 49.4%가 소원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즉, 거의 반에 해당하는 교회는 지역 내의 다른 교회들과 약간의 관계를 갖고 있었고, 적극적으로 협조적인 관계에 있는 교회는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단에 비해 구세군이 지역사회 내에서 타교회와 긴밀하거나 부분적인 협조관계에 있었고, 기장이 상대적으로 타교회와의 관계가 더 소원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지역 내의 타교회와의 관계

(단위: %, 명)

구분	예장 (통합)	예장 (합동)	기장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구세군	전체
매우소원	38.0	23.7	46.7	32.8	35.5	36.2	20.0	31.8
약간소원	24.1	18.6	-	16.4	16.1	14.9	6.7	17.6
부분협조	34.5	55.2	46.7	46.3	41.9	44.6	53.3	46.1
긴밀협조	3.4	2.5	6.6	4.5	6.5	4.3	20.0	4.5
계	100.0 (87)	100.0 (118)	100.0 (15)	100.0 (67)	100.0 (31)	100.0 (47)	100.0 (15)	100.0 (380)

(4) 공공기관과의 관계

지역사회내의 공공기관과의 관계를 <표 1-4>에서 살펴보았다. 사회복지활동과 관련한 지역사회 내 구청, 경찰서, 정부부처 등의 공공기관과의 관계에 대하여 부분 협조관계는 49.9%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공공기관과 별 관계가 없다는 응답도 42.1%나 되었다. 반면, 지역사회내의 공공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곳은 7.0%에 불과하였다. 공공기관과 심한 갈등관계에 있는 교회는 한 곳도 없었다.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는 경우는 침례교와 예장 합동측이 다른 교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간 더 높았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지역사회내의 구청, 경찰서, 정부부처 등의 공공기관과는

부분적인 협조관계에 있거나 별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회들은 다른 교회와의 관계나 공공기관과의 관계에서 긴밀하지는 않고 부분적인 협조관계를 이루고 있었다. 이는 교회들이 사회복지활동을 실시함에 있어서 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서 보다는 개교회 중심으로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1-4> 공공기관과의 관계

(단위: %, 명)

구분	예장 (통합)	예장 (합동)	기장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구세군	전체
관계없음	51.1	46.2	23.5	29.4	48.4	42.9	20.0	42.1
심한 갈등	-	-	-	-	-	-	-	-
약간불편	3.4	-	-	-	3.2	-	-	1.0
부분협조	39.8	46.2	70.6	63.2	35.5	53.0	73.3	49.9
긴밀협조	5.7	7.6	5.9	7.4	12.9	4.1	6.7	7.0
계	100.0 (88)	100.0 (119)	100.0 (17)	100.0 (68)	100.0 (31)	100.0 (49)	100.0 (15)	100.0 (387)

(5) 교회 사회복지활동 활성화 방안

① 필수 사회복지활동 분야

한국교회가 소명을 가지고 꼭 실천해야 할 사회복지활동분야는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인복지(29.5%), 청소년복지(6.7%), 장애인복지(15.8%)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복지 및 가족상담 분야는 매우 낮은 인지율(4.2%)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목회자들은 향후 교회에서 증가하는 노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인복지를 담당하고,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을 보호하며, 장애인과 특수소외계층에 대한 복지를 담당할 시설을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5> 필수 사회복지 활동분야(2개 선택)

(단위: %, 명)

구 분	빈 도	백분율
아동복지	69	8.6
청소년복지	134	16.7
노인복지	237	29.5
장애인복지	127	15.8
여성복지/가족상담	34	4.2
지역사회복지	104	12.9
특수소외계층복지	94	11.7
기타	5	0.6
전체	804	100.0

② 사회복지활동 수행의 어려운 점

사회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발생되는 어려운 점으로 종합점수를 구한 결과(<표 1-6> 참조) 교회의 재정문제, 지식과 기술의 부족, 신자들의 인식 부족의 순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종교계에 대한 인식과는 달리 목회자들은 사회복지를 하기에 교회의 재정이 부족하고, 교회내에 사회복지활동을 하기 위한 시설 및 공간이 부족하다고 인

식하고 있었다.

<표 2-28> 사회복지활동 수행의 어려운 점 종합점수 (단위: 명, %)

구 분	1순위	2순위	종합점수 ¹	백분율
교회 재정문제	272	37	581	51.0
지식과 기술부족	23	55	101	8.9
시설 및 공간 부족	40	155	235	20.6
신자들 인식부족	19	61	99	8.7
지역주민 호응부족	3	24	30	2.6
행정절차 복잡	3	8	14	1.2
당회의 소극적	10	13	33	2.9
어려움 없음	3	4	10	0.9
기타	9	19	37	3.2
전체	382	376	1140	100.0

주: 종합점수=(1순위 빈도 × 200%) + (2순위 빈도 × 100%)

2) 천주교

천주교는 1854년 영해회의 설립 이후 6,70년대까지 사회복지사업에 선구적, 주도적 역할을 해왔고 김홍권(1997)의 조사에 의하면 9개 사회복지 사업분야에서 각 종교의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종교별 인구수를 감안한다면 가톨릭이 가장 공헌이 큰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톨릭 사회복지기관, 시설의 실태에 관해서는 제대로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1989년 한국 가톨릭 사회복지협회가 전국 136개 시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고, 1998년에 최혜경⁴⁾이 연구한 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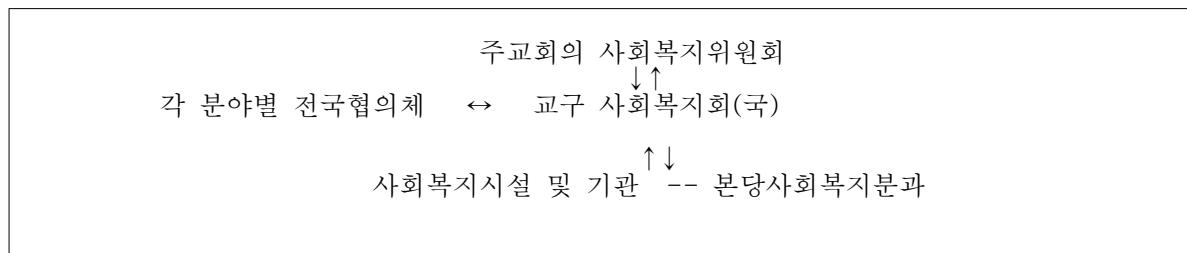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의 자료인 ○○○의 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천주교 사회복지의 기본조직 체계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톨릭 사회복지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작용하는 교회 내의 기본적인 조직체계는 주교회의 산하 사회복지위원회, 각 교구의 사회복지회, 본당의 사회복지분과, 개별사회복지시설·기관, 그리고 각 복지분야별 전국협의단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와 분야별 전국협의단체는 주로 조정 및 협의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이고, 교구 사회복지회나 본당 사회복지분과는 조정·협의·지원 기능과 함께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까지도 동시에 수행하는 조직이며, 개별 사회복지시설·기관은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1> 천주교 사회복지의 기본조직 체계

4) 최혜경, 가톨릭사회복지 기관 · 시설 현황과 발전방향. 사회과학논문 제 9권.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8.



자료 : 천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2002:34.

(2) 가톨릭 사회복지 기관 · 시설 수

<표 2-2>에서 보는바와 같이, 카톨릭교회 내에서 사회복지시설·기관에 대한 공식 조사를 많이 하지 않으나 최근조사에 의하면 적어도 양적으로는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89년부터 90년대에 시설 설립이 급격하게 팽창했음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여성복지 영역, 알코올 중독문제, AIDS, 호스피스 등과 관련해 새로운 시설들이 등장하고 시설 수가 증가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복지 분야별 전국협의단체의 주요 기능은 회원시설·기관 간의 협력과 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과 조작은 현재 시설·기관간의 정보교류, 공동프로그램시행, 대외협력, 소규모의 경제적 지원,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홍보 및 후원회 설치 등을 통하여 수행된다.

복지 분야별 전국협의단체의 현황은 7개 단체(한국가톨릭 결핵사업연합회, 나사업연합회, 농아선교협의회, 맹인선교협의회, 아동복지협의회, 장애인복지협의회, 실직노숙자복지협의회)가 있으며, 사회복지 시설·기관을 교구별로 보면 서울대교구에 전체 시설의 21.0%인 110개소가 있으며, 대구대교구에 12.4%인 65개소, 광주대교구에 11.5%인 60개소, 부산대교구에 11.1%인 58개소가 있다. 제주교구 9개소, 원주교구 15개소, 전주교구 16개소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표 2-2> 가톨릭 사회복지 기관 · 시설 수

발표시점	1976년	1986년	1989년	1996년	1999년	2001년
시설수	56	257	395	438	524	615

자료: 천주교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2002:43.

(3) 사회복지 분야별 분포도

<표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톨릭 사회복지는 일반적인 사회복지분야를 13개 범주로 나누며, 장애인복지(21.2%), 노인복지(16.2%), 아동복지(15.1%), 청소년복지(12.3%)의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또한 지역복지사업에 해당하는 종합복지관사업도 6.1%를 보여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인다.

<표 2-3> 사회복지 분야별 분포도

분야	빈도 (시설수)	%
장애인복지	111	21.2
노인복지	85	16.2
아동복지	79	15.1
청소년복지	64	12.2
부랑인복지	43	8.2
종합복지	32	6.1
여성복지	25	4.8
한센우복지	24	4.6
의료복지	22	4.2
상담	21	4.0
교정복지	6	1.1
기타	6	1.1
결핵복지	5	1.0
무응답	1	0.2
계	524	100

자료 : 천주교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2002: 68.

(4) 분야별 시설 · 기관의 종류

분야별 시설 · 기관의 종류를 보면 <표2-4>에 나타나듯이 노인복지분야는 무의탁 노인 생활시설인 양로시설의 비율이 가장 높아 62개소에 이르며, 아동복지분야는 어린이집과 공부방이 각기 44개소, 15개소에 이르고 있다. 장애인복지 분야는 장애인 보호시설이 36개소, 장애인 소규모 생활시설이 22개소이다. 청소년 복지 분야는 청소년 소규모 생활시설이 23개소, 아동복지분야는 소규모 생활시설이 7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복지 분야는 미혼모 보호시설, 부랑인복지 분야는 무료급식소, 한센우복지 분야는 정착마을의 비율이 높았다. 상담분야는 전화상담, 노동상담 순이었다. (한국천주교사회복지백서, 2001: 70~71)

<표2-4> 사회복지 시설 · 기관의 종류

시설종류	시설종류	빈도수	%
장애인복지	장애인보호시설	36	6.9
	장애인소공동체	21	4.0
	장애인복지관	13	2.5
	특수교육기관	11	2.1
	기타(장애)	10	1.9
	장애인보육시설	8	1.5
	보호작업장	7	1.3
	직업훈련기관	1	0.2
노인복지	양로원	62	11.8
	요양원	10	1.9
	유료양로원	4	0.8
	노인복지회관	4	0.8
	노인종합복지관	3	0.6
아동복지	어린이집	44	8.4
	공부방	15	2.9
	보육원	7	1.3
	소공동체	7	1.3
	영아원	4	0.8
	일시 보호소	4	0.8
	기타(아동)	2	0.4
청소년복지	청소년소공동체	23	4.4
	청소년공부방	18	3.4

	결손가정청소년보호시설	13	2.5
	청소년쉼터	4	0.8
	기타(청소년)	4	0.8
	청소년기술훈련기관	3	0.6
	청소년수련원	1	0.2
	청소년상담소	1	0.2
부랑인복지	부랑인무료급식소	21	4.0
	부랑인보호시설	9	1.7
	부랑인소공동체	9	1.7
	기타(부랑인)	1	0.2
지역복지	종합복지관	32	6.1
여성복지	미혼모보호시설	10	1.9
	여성쉼터	8	1.5
	여성상담소	3	0.6
	모자원	2	0.4
	여성기술원	1	0.2
	기타(여성)	1	0.2
한센우복지	정착마을	17	3.2
	한센우시설	5	1.0
	기타(한센우)	1	0.2
의료복지	병원 및 의원	16	3.1
	가정호스피스	5	1.0
	결핵요양원	3	0.6
	요양원	1	0.2
	결핵자활촌	1	0.2
상담분야	전화상담시설	8	1.5
	일반상담시설	5	1.0
	노동상담시설	4	0.8
교정시설	교정시설	6	1.1
	무응답	14	2.7
	합계	524	100

자료: 천주교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2002: 71.

3) 불교

전문적 사회복지사업으로써 불교계의 사회복지 활동 참여는 1987년 목동청소년회관을 위탁 운영하면서 적극성을 띠기 시작하였다. 이와 더불어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에서는 사회복지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부’를 두고 있으며 총무원의 하부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24개의 본사에 ‘문화사회복지부’를 설치하여 사회복지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⁵⁾

급격한 복지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불교계는 1999년 ‘불교사회복지정보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서 불교 사회복지 시설 및 사회복지관련 법안단체에 대한 공식적인 수치가 파악되었고, 이를 토대로 《불교사회복지총람》이 발간되었다. 그러나 이후 신설 폐쇄되거나, 혹은 운영권이 타기관에서 불교계로 넘어오거나, 또는 타기관으로 운영권이 넘어 간 시설 등에 대한 개정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불교 사회복지 활동의 현주소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의 조사 자료인 2006년 임해영의 연구⁶⁾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

5) 조성희. 불교 사회복지사업의 현황과 과제. 중앙승가대 강사.

6) 임해영. 불교사회복지 기관 실태조사 분석.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불교사회복지연구소 선임연구원. 「불교 사회복지편람」 2006.

다. 임해영의 연구에서는 총 477개소를 불교계 사회복지시설로 파악하였으며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에 응답한 시설은 389개소였으며 사회복지관련 법인 및 단체는 107개소로 파악되었다.

(1) 불교계 사회복지시설 수의 변화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1999년에 이어 7년 만에 불교계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교계 사회복지시설의 총수는 1995년에 비해서 382개소, 1999년에 비해서 165개소가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을 통해 1990년 대 중반 이후에 불교계 사회복지시설이 급증 하였다는 것과, 노인, 아동, 장애인, 지역사회복지 시설이 두드러진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여성, 의료, 상담 관련 사회복지시설의 증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청소년, 노숙인, 자원봉사 관련 시설의 경우 1999년에 비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1> 연도별 불교계 사회복지시설 총수 변화

분야 ⁷⁾	1995		1999		2006(미회신시설)	
아동	21	22.1%	135	43.3%	142(51)	40.4%
청소년	15	15.8%	31	9.9%	28(3)	6.5%
노인	11	11.6%	50	16.0%	106(23)	27.0%
장애인	9	9.5%	13	4.2%	44(1)	9.4%
여성	-	-	1	0.3%	3(0)	0.6%
지역사회	20	21.0%	35	11.2%	50(1)	10.7%
노숙인·부랑인	3	3.2%	11	3.5%	8(0)	1.7%
의료	-	-	5	1.6%	2(3)	1.1%
상담	-	-	5	1.6%	1(4)	1.1%
자원봉사	-	-	3	1.0%	1(1)	0.4%
기타	16	16.8%	23	7.4%	4(1)	1.1%
합계	95	100.0%	312	100.0%	389(88)	100.0%

* 1995년, 1999년 조사결과치 중 법인·단체·기관 등의 수치는 불교계 사회복지시설에서 제외

(2) 지역별 분포의 변화추이

지역별 분포의 변화추이를 보면 서울·경기도 지역분포가 1999년 55.5%에 비해 2006년 45.2%로서 10.3% 감소하였다. 이것은 1999년에 비해 지역편중이 다소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이 지역의 불교계 사회복지시설의 분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구·경북 12.2%, 부산·경남 14.9%, 울산 1.5%로 경상도권이 28.6%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광주·전남 6.7%, 전북 1.7%로 전라도권이 8.4%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서 강원도 6.5%, 대전·충남 4.0%, 충북 2.1%로 충청도권이 6.1%, 제주도 2.3%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금번 조사에서도 불교계 사회복지시설은 서울·경기도 지역과 경상도 지역에 주로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7) 시설분야는 1995년, 1999년의 분류기준을 기본적으로 따르되, 근로복지는 노숙인·부랑인 분야에 포함하였고, 장의복지, 사회체육분야는 기타에 포함하였다.

<표 3-2> 불교계 사회복지시설 수의 지역별 변화 추이

구 분	1999		2006(미회신시설)		증 감
서울	131	42.0%	145(26)	35.8%	△ 40
경기	42	13.5%	37(8)	9.4%	△ 3
인천	6	1.9%	10(4)	2.9%	△ 8
강원	16	5.1%	28(3)	6.5%	△ 15
충남	4	1.3%	10(2)	2.5%	△ 8
대전	6	1.9%	6(1)	1.5%	△ 1
충북	9	2.9%	7(3)	2.1%	△ 1
부산	18	5.8%	27(10)	7.8%	△ 19
울산	0	-	7(0)	1.5%	△ 7
대구	25	8.0%	25(1)	5.5%	△ 1
경북	17	5.5%	23(9)	6.7%	△ 15
경남	16	5.1%	23(11)	7.1%	△ 18
전남	8	2.6%	16(5)	4.4%	△ 13
광주	6	1.9%	11(0)	2.3%	△ 5
전북	2	0.6%	7(1)	1.7%	△ 6
제주	4	1.3%	7(4)	2.3%	△ 7
(해외)	2	0.6%	0(0)	-	▽ 2
합계	312	100%	389(88)	100%	△165

(3) 운영주체

① 시설 운영주체

불교계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주체는 종단차원⁸⁾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 78.6(306개소)%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승려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10.3(40개소)%이며, 신도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은 9.8(38개소)%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불교계 사회복지시설은 종단차원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표 3-3> 시설 운영주체

구 分	빈 도	분 포(%)
종단차원	306	78.6
승려개인	40	10.3
신도개인	38	9.8
기 타	5	1.3
합계	389	100.0

② 시설 운영주체 관련 종단

시설 운영주체와 관련 있는 종단은 대한불교조계종이 89.7(349개소)%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8) 본 조사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범주에 포함될 때, '종단차원'이라고 파악하였다.

첫째, 종단차원에서 직접 설립한 사회복지관련 법인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둘째, 종단에 소속된 교구본사, 말사 등 개별 사찰에서 설립한 사회복지관련 법인 및 단체 혹은 개별 사찰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셋째, 종단에 소속된 스님 중에서 복지활동을 통해 불교포교에 앞장서고자 설립한 사회복지관련 법인단체 혹은 스님이 개별적으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다음으로 대한불교진각종 3.9(15개소)%, 한국불교태고종 2.6(10개소)%, 대한불교천태종 1.3(5개소)%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4> 시설 운영주체와 관련 있는 종단

구 분	빈 도	분 포(%)
대한불교조계종	349	89.7
대한불교진각종	15	3.9
한국불교태고종	10	2.6
대한불교천태종	5	1.3
대한불교관음종	2	0.5
기타	8	2.0
합계	389	100.0

(3) 시설 운영주체의 법인·단체 형태

시설의 운영주체는 사회복지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80.2%인 312개소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사찰에서 운영하는 형태가 6.4%인 25개소, 사단법인 형태가 4.9%인 19개소, 재단법인 4.4%인 17개소, 비영리민간단체 2.6%인 10개소, 학교법인 0.8%인 3개소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1999년 《불교사회복지총람》의 결과인 사회복지법인 66.3%, 재단법인 8.1%, 사단법인 5.8%의 결과보다 사회복지법인 비율은 13.9% 높게 나타나고 있고,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의 비율은 각각 3.7%, 0.9%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3-5> 시설 운영주체의 법인 형태

구 분	빈 도	분 포(%)
사회복지법인	312	80.2
사찰	25	6.4
사단법인	19	4.9
재단법인	17	4.4
비영리민간단체	10	2.6
학교법인	3	0.8
기타	3	0.7
합계	389	100.0

(4) 시설신고 유형

신고유형은 신고시설이 94.9%인 369개소, 조건부(미신고)시설이 2.8%인 11개소, 미신고 시설이 2.3%인 9개소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치는 2005년 6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신고시설 90.3(363개소)%, 미신고시설 9.7(39개소)%의 조사결과치보다 신고시설 비중이 약 4.2% 정도 높게 나타나는 결과이다.

<표 3-6> 인가유형

구 분	빈 도	분 포(%)
신고시설	369	94.9
조건부(미신고)시설	11	2.8
미신고시설	9	2.3
합계	389	100.0

한편 운영주체별 신고유형을 보면, 신고시설의 경우 종단차원 80.4%, 승려개인 9.5%, 신도 개인 8.7%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미신고시설은 신도 개인 55.6%, 종단차원 33.3%, 승려 개인 11.1%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신고시설은 종단차원에서 운영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미신고 시설은 신도개인이 운영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7> 시설 운영주체별 인가유형의 분포

구 分	종단차원	승려개인	신도개인	기 타	계
신고시설	개소	297	35	32	5
	분포(%)	80.4	9.5	8.7	1.4
조건부시설	개소	6	4	1	0
	분포(%)	54.6	36.3	9.1	-
미신고시설	개소	3	1	5	0
	분포(%)	33.3	11.1	55.6	-
전 체	개소	306	40	38	5
	분포(%)	78.7	10.3	9.7	1.3
					389
					100.0

⑤ 시설 소유형태

시설의 소유형태는 정부(지자체) 소유가 59.1(230개소)%로 가장 높고, 자체소유 27.8(108개소)%, 무료임대 8.0(31개소)%, 월세 2.1(8개소)%, 전세 1.5(6개소)%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8> 시설 소유형태

구 分	빈 도	분 포(%)
정부(지자체) 소유	230	59.1
자가	108	27.8
무료임대	31	8.0
월세	8	2.1
전세	6	1.5
기타	6	1.5
합계	389	100.0

(4) 사업 분야와 사업유형

① 사업 분야

회신된 389개 시설을 대상으로 시설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 분야에 대해 질문한 결과, 해당 사업 분야에 대해 총 536개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률은 138.5%로서 사회복지시설 1 개소당 평균 1.38개를 응답한 결과이다. 이중 아동복지 분야가 31.5(169개)%로 가장 높으며, 노인복지 24.1(129개)%, 장애인복지 10.2(55개)%, 지역사회복지 9.9(53개)%, 상담분야 8.8(47개)%, 청소년 복지 7.5(40개)%, 의료복지 2.6(14개)%, 여성복지 2.1(11개)%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9> 사업 분야

(복수 응답)

구 분	빈 도	분 포(%)	누적분포(%)
아동복지	169	31.5	43.7
노인복지	129	24.1	33.3
장애인복지	55	10.2	14.2
지역사회복지	53	9.9	13.7
상담	47	8.8	12.1
청소년복지	40	7.5	10.3
노숙인복지	18	3.3	4.7
의료복지	14	2.6	3.6
여성복지	11	2.1	2.8
합계	536	100.0	138.5

② 아동복지 사업유형

아동복지 분야의 사업 유형은 어린이집이 77.0(144개)%로 가장 높고, 방과후교실이 9.1(17개)%, 보육원이 6.4(12개)%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1999년 《불교사회복지총람》의 어린이집 운영 66.7%보다 10.3% 높게 나타난 결과이다.

<표 3-10> 아동복지 사업유형

(복수 응답)

구 분	빈 도	분 포(%)	누적분포(%)
어린이집 / 놀이방	144	77.0	85.2
방과후교실	17	9.1	10.1
보육원	12	6.4	7.1
일시보호소	4	2.1	2.4
쉼터	3	1.6	1.8
영아원	2	1.1	1.2
입양원	1	0.5	0.6
기타	4	2.1	2.4
합계	187	100.0	110.7

③ 청소년복지 사업유형

청소년복지 분야의 사업유형은 공부방·독서실 60.4(26개)%, 청소년수련원 16.3(7개)%, 청소년자원봉사센터 11.6(5개)%, 청소년회관 4.7(2개)%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1999년 《불교사회복지총람》의 공부방·독서실 운영 66.7% 보다 본 조사 결과가 6.3%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11> 청소년복지 사업유형

(복수 응답)

구 분	빈 도	분 포(%)	누적분포(%)
공부방 · 독서실	26	60.4	65.0
청소년수련원	7	16.3	17.5
청소년자원봉사센터	5	11.6	12.5
청소년회관	2	4.7	5.0
결손가정 청소년보호시설	1	2.3	2.5
기타	2	4.7	5.0
합계	43	100.0	107.5

④ 노인복지 사업유형

노인복지 분야의 경우 요양시설이 20.3(37개)%로 가장 많고, 주간보호시설 18.7(34개)%, 무료급식소 15.9(29개)%, 노인복지관 12.1(22개)%, 양로시설 6.0(11개)%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12> 노인복지 사업유형

(복수 응답)

구 분	빈 도	분 포(%)	누적분포(%)
양로시설	11	6.0	8.6
요양시설	37	20.3	28.9
그룹홈 / 쉼터	3	1.7	2.3
노인정	8	4.4	6.3
노인복지관	22	12.1	17.2
무료급식소	29	15.9	22.7
치매단기보호소	9	5.0	7.0
주간보호시설	34	18.7	26.6
기타	29	15.9	22.7
합계	182	100.0	142.2

⑤ 장애인복지 사업유형

장애인복지 분야의 사업유형으로는 기타를 제외한 장애인복지관이 18.5(12개)%, 소공동체와 보육시설이 각각 12.3(8개)%, 성인장애인보호시설 10.8(7개)%, 자립작업장과 재활시설은 각각 7.7(5개)%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13> 장애인복지 사업유형

(복수 응답)

구 분	빈 도	분 포(%)	누적분포(%)
재활시설	5	7.7	8.9
성인장애인보호시설	7	10.8	12.5
특수교육시설	1	1.5	1.8
보육시설	8	12.3	14.3
자립작업장	5	7.7	8.9
장애인복지관	12	18.5	21.4
그룹홈	8	12.3	14.3
기타	19	29.2	33.9
합계	65	100.0	116.1

⑥ 여성복지 사업유형

여성복지 분야의 경우 기타 38.4(5개)%, 상담소가 30.8(4개)%, 기술원 15.4(2개)%, 가정폭력피해여성쉼터, 모자원이 각각 7.7(1개)%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14> 여성복지 사업유형

(복수 응답)

구 분	빈 도	분 포(%)	누적분포(%)
기술원	2	15.4	16.7
상담소	4	30.8	33.3
가정폭력피해여성쉼터	1	7.7	8.3
모자원	1	7.7	8.3
기타	5	38.4	41.7
합계	13	100.0	108.3

⑦ 노숙인복지 사업유형

노숙인복지 분야는 노숙인무료급식소 33.3(8개)%, 20인 이상 보호시설 29.2(7개)%, 소공동체쉼터 25.0(6개)%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15> 노숙인복지 사업유형

(복수 응답)

구 분	빈 도	분 포(%)	누적분포(%)
노숙인무료급식소	8	33.3	44.4
그룹홈 / 쉼터	6	25.0	33.3
20인 이상 보호시설	7	29.2	38.9
기타	3	12.5	16.7
합계	24	100.0	133.3

⑧ 의료복지 사업유형

의료복지 분야의 경우, 호스피스 요양원 28.6(4개)%, 소공동체·쉼터 21.5(3개)%, 병원 · 병원사회사업 · 가정 호스피스가 각각 7.1(1개)% 순이며, 기타(무료진료 등)가 28.6%를 차지하고 있다.

<표 3-16> 의료복지 사업유형

(복수 응답)

구 분	빈 도	분 포(%)	누적분포(%)
병원	1	7.1	7.1
병원사회사업실	1	7.1	7.1
가정호스피스	1	7.1	7.1
호스피스요양원	4	28.6	28.6
소공동체 / 쉼터	3	21.5	21.5
기타	4	28.6	28.6
합계	14	100.0	100.0

⑨ 상담 분야 사업유형

상담 분야의 경우, 일반상담 34.4(32개)%, 전화상담 33.3(31개)%, 청소년상담 18.3(17개)%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17> 상담 사업유형

(복수 응답)

구 분	빈 도	분 포(%)	누적분포(%)
일반상담	32	34.4	68.1
전화상담	31	33.3	66.0
청소년상담	17	18.3	36.2
재활(치료)상담	7	7.5	14.9
기타	6	6.5	12.8
합계	93	100.0	197.9

⑩ 지역사회복지 사업유형

지역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종합사회복지관 69.1(38개)%, 사회복지관 14.6(8개)%, 자활후견 기관 12.7(7개)% 순이며, 기타(자원봉사센터 등) 3.6(2개)%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18> 지역복지 사업유형

(복수 응답)

구 분	빈 도	분 포(%)	누적분포(%)
종합사회복지관	38	69.1	70.4
사회복지관	8	14.6	14.8
자활후견기관	7	12.7	13.0
자원봉사센터	2	3.6	3.7
합계	55	100.0	101.9

4) 원불교

원불교 사회복지사업 실천의 역사를 심대섭은 원불교사회복지총람(2008)에서 크게 3기로 구분하여 설명한다.⁹⁾ 1기(1943~1962)의 사회복지사업 실천역사는 8·15 광복이후 전재동포 구호

9) 심대섭. 원불교사회복지사업 60년의 맥락과 성찰. 원불교사회복지총람. 2008.

사업을 필두로 1947년 재단법인 원불교 정관에 교화 교육 자선을 교정의 3대 목표로 설정함으로써 시작되었고 6.25이후 신용양로원(1952년), 이리보육원(1953) 등이 설립된 과정이다. 2기(전기 : 1962~1980, 후기 : 1981~1994)는 아동복지시설의 해체와 통합이 있었던 전기의 정체기를 거쳐 후기 1981년에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의 설립된 이후 특수사회사업과 종합복지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1983에는 원광대학교에 사회복지학과가 설치되어 원불교 사회복지 전문화에 기여한 시기이다. 3기(1995~현재)에는 중도원, 유린보은동산, 원광효도마을, 섬나기, 한울안, 원불교창필재단, 청운보은동산, 강원삼동회, 원봉회, 원봉공회, 부산원광, 원빛골, 은혜원 등 신규 법인이 설립되었으며 2008년 3월 현재 14개법인, 184개의 시설현황과 1999년에 원불교사회복지협의회의 결성으로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양적 질적 성장을 가져온 시기로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8 원불교사회복지총람과 원불교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 시설현황을 근거자료로 하여 그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원불교 사회복지시설 수의 분야별, 연도별 변화

원불교 사회복지시설의 수는 1981년 삼동회의 설립과 종교적 성장 및 정부의 사회복지정책과 맞물려 1991년 사회복지관 위탁과 함께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맞물려 노인시설이 급증하게 되면서 2008년 3월 현재 184개의 시설현황을 보인다.

분야별로 살펴봤을 때 노인복지(49.4%), 아동복지(26.1%), 장애인복지(9.8%), 지역사회복지(8.7%) 순으로 나타난다. 아동복지의 시설현황이 대부분 어린이집을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원불교 사회복지의 실천 대상은 대부분 노인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1> 원불교 사회복지시설의 분야별, 연도별 현황

분야 ¹⁰⁾	1기 (1943~1962)	2기(1962~1994)		3기(1995~현재)	
		전기 (1962~1980)	후기 (1981~1994)		
아동복지	4 ¹¹⁾	2 ¹²⁾	13	42	22.8%
노인복지	2 ¹³⁾	2	7	95	51.6%
장애인복지	-	-	1	20	10.9%
지역사회복지	-	-	12	15	8.2%
부랑인복지	-	-	-	1	0.5%
기타 ¹⁴⁾	-	-	3	11	6.0%
합계	6	4	36	184 ¹⁵⁾	100.0%

10) 시설분야는 원불교사회복지총람(2008)과 원불교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 분야별 시설현황을 근거로 하여 구분 하였음.

11) 서울보화원(1946), 익산보화원(1951), 한국보육원(1951), 이리보육원(1957)

12) 익산보화원과 한국보육원이 해체되고 이리보육원으로 통합됨

13) 신룡양로원(1952), 전주양로원(1949)

14) 지역자활센터, 모자원, 쉼터, 푸드뱅크, 인재은행 등

15) 2008년 3월 현재 원불교사회복지협의회 산하시설 기준이며, 2009년 6월 현재 196개 시설로 파악된다. 참조로

(2) 원불교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지역별 분포 현황

<표 4-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불교의 사회복지법인의 지역별 분포 현황은 전북(4개), 서울(3개), 제주(2개)의 순으로 나타나 있으며 전체 법인수를 고려할 때, 전북을 중심으로 하여 서울과 제주지역에 주로 법인이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설 분포 현황도 전북(88개, 47.8%), 서울(24개, 13.0%), 제주(12개, 6.5%) 순으로 나타나 법인의 분포 현황 순위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원불교 사회복지시설은 대부분 전북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인구 분포수가 많은 울산, 인천, 대구, 경북 및 충청도와 강원도는 상대적으로 분포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원불교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지역별 분포 현황

구 분	법인 수	시설 수	구분	법인 수	시설 수
전북	4	88(47.8%)	강원도	1	4(2.2%)
서울	3	24(13.0%)	충북	1	3(1.6%)
제주	2	12(6.5%)	경남	-	3(1.6%)
광주	1	10(5.4%)	대구	-	2(1.1%)
경기도	1	10(5.4%)	경북	-	2(1.1%)
부산	1	8(4.3%)	인천	-	-
전남	-	7(3.8%)	울산	-	-
대전	-	6(3.3%)	합계	14	184(100.0%)
충남	-	5(2.7%)			

(3) 원불교 법인별 시설 운영현황

법인별 시설 운영현황은 <표 4-3>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법인산하의 시설 수는 삼동회(47.8%), 중도원(10.9%), 원광효도마을(7.1%), 한울안(6.5%)의 순이었으며 삼동회의 시설 수가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표 4-3> 원불교 법인별 시설 운영현황

재단법인 원불교 산하의 108개소 시설(보육시설 96개소 및 지역아동센터, 노인그룹홈, 소규모다기능시설)과 사단법인 삼동청소년회 산하시설 14개소 시설(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 청소년지원센터 등)은 포함되지 않았음.

순번	법인명	설립년도	시설 수	순번	법인명	설립년도	시설 수
1	원불교창필재단	1950.10	8	8	강원삼동회	2000.11	4
2	삼동회	1981. 6	88 (1순위)	9	한울안	2001.10	12
3	유린보은동산	1992. 1	14	10	부산원광	2002.10	2
4	청운보은동산	1994.10	6	11	원빛골	2003. 1	1
5	원봉회	1996. 7	2	12	원광효도마을	2003. 5	13 (3순위)
6	중도원	1997. 4	20 (2순위)	13	섬나기	2005. 2	11
7	원봉공회	1998. 6	0	14	은혜원	2008. 2	3
총 시설 수 : 184							

2.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종교계의 지원금 현황

고경환의 연구¹⁶⁾에 의하면 우리나라 종교계의 사회복지시설 지원금 실태분석 결과 과소지원과 시설 간 편중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재원의 구성을 살펴보면 <표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 지원금이 약 57%, 이용자 부담금이 약 16%, 기업·민간모금단체 등의 후원금과 잡수입 등이 약 16%, 그리고 종교계 지원금이 약 10%로 나타났다. 즉, 종교계의 지원금은 복지시설 전체 세입의 약 10%내외(10.6% ~ 12.0%)였으며 복지 시설의 이용자 부담금(16%)보다 낮게 나타났기에 고경환은 이의 원인을 종단의 재정능력 또는 복지활동의 지원의지 부족 등에 있음을 주장한다.

<표 5-1. 종교계 사회복지시설의 총세입 규모 및 구성 : 재원별·연도별>

(단위 : 백만원, %)

	2001	2002	2003
계 (n)	457,514(100.0) (851)****	516,517(100.0) (851)	556,492(100.0) (851)
정부지원금*	260,933(57.0)	292,612(56.7)	318,657(57.3)
종교계지원금**	54,864(12.0)	58,065(11.2)	59,009(10.6)
이용자부담금***	73,515(16.1)	79,829(15.5)	87,594(15.7)
기타****	68,202(14.9)	86,011(16.7)	91,232(16.4)

*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지원금 포함. ** 종단본부·교구·예당·종교계 법인 등의 지원금 포함.

*** 시설이용자의 부담금. **** 기업·민간모금단체 등의 후원금, 잡수입, 전년도 이월금 등 포함.

***** 조사표의 일부 항목이라도 응답한 시설의 수는 956개이지만, 조사표의 모든 항목을 응답한 시설 수는 851개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종교계의 지원금 규모는 <표 5-2>에 나타나 있듯이, 2001년에 548억 원, 2002년에 580억원, 그리고 2003년에 약 590억원으로 추계되었다. 시설당 평균지원금은 약 4천만원(3.6~3.9천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3년간 전년대비 증가율은 1.6~5.8%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 서비스 예산에 비추어볼 때 종교계의 지원금 비중은 1.4%(2003년)

16) 고경환. 한국종교계의 사회복지시설 지원금 실태분석. 사회복지포럼. 2006 : 2001~2003년간의 종교간 사회복지시설 지원금 실태를 분석한 자료로써, 2003년 말 우리나라 사회복지 시설 수 4,048개 중에서 2,162개(53.4%) 가 종교계에서 운영하고 있었으며 그 중 1,891개 시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5-2.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종교계의 지원금 규모(2001~2003)

(단위 : 백만원, %)

	2001	2002	2003
지출규모	54,864	58,065	59,009
시설당 평균지원금	36	38	39
작년대비 증가율(%)	-	5.8	1.6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서비스 예산에 대한 비율	1.5	1.5	1.4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종교계의 지원금 분포는 <표 5-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3년도 연간 500만원 이하의 시설이 29.4%, 1,000만원 이하가 38.3%, 2,500만원 이하가 38.3%, 2,500만원 이하가 52.4%로 나타났다. 즉, 사회복지시설 중 약 50%가 종교계로부터 연간 2,500만원 이하의 지원금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연간 5백만원 미만의 지원금을 받는 시설이 전체 시설의 29.4%인 반면, 5천만원 이상을 받는 시설이 약 33.3%로 나타났다. 즉, 이 수치는 종교계의 지원금에 대한 상하위시설간 격차가 10배 이상 발생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고경환은 이 원인을 시설별 공급규모(종사자 수, 생활자 수, 시설 규모 등)의 차이와 종단의 재정 능력 또는 복지활동 지원의지 등의 차이 때문에 발생된다고 주장한다.

한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금 규모를 종단별로 살펴보면 2003년도 전체 590억원중 천주교가 279억원(47.3%), 기독교가 170억원(28.7%), 불교가 97억원(16.5%) 순이며, 원불교와 그 외 종교가 각각 9억원(1.5%), 약 36억원(6.0%)으로 나타났다.

<표 5-3.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종교계의 지원금 규모(2003)

(단위 : 백만원, %)

	계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기타 종교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5백만원 미만	29.4	30.2	27.1	29.0	36.1	33.3
5백~1천만원미만	8.9	7.2	5.7	15.0	11.1	8.3
1~1천5백만원미만	4.2	4.7	2.4	5.6	2.8	5.6
1천5백~2천5백만원미만	9.9	11.3	6.1	12.6	8.3	8.3
2천5백~3천5백만원미만	6.6	8.2	6.9	3.7	8.3	5.6
3천5백~5천만원미만	7.8	8.2	5.7	7.5	13.9	13.9
5천만원이상	33.3	30.2	46.3	26.7	19.5	25.1

3. 시설장의 성직자 참여 정도

시설장의 성직자 참여 정도에 있어서 천주교, 기독교의 조사 내용은 연구된 바가 없어서 제시할 수 없으며 불교는 임해영의 연구¹⁷⁾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며 원불교는 여기서는 불교와 원불교를 중심으로 성직자의 참여여부 및 시설 직원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먼저 불교의 성직자 참여정도와 직원현황에 대해 살펴보면, <표 6-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가자가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인 비율이 63.0%(245개소)로 나타났는데 이는 1999년 <불교

17) 전계서. 2006.

사회복지총람> 결과 수치인 51.2%와 비교하여 볼 때 14.2%가 증가하였다. 또한 시설 직원 규모에 있어서 현 직원 수는 사회복지시설 1개소당 평균인원 13.82명으로 나타나고 있고 불교 사회복지시설 전체 직원 수를 약 6,592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표 6-1> 시설장의 스님 여부

구 분	빈 도	분 포(%)
재가자	245	63.0
스님	144	37.0
합계	389	100.0

원불교의 성직자 참여 정도와 직원현황을 살펴보면¹⁸⁾ 2008년 3월 기준으로 개원예정인 곳 7곳을 제외하면 총 시설 수가 177곳으로 나타나며 그 중 166명의 성직자¹⁹⁾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93.8%의 성직자 근무율을 보였으며 성직자가 아닌 경우의 시설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원 수는 2,119명으로 파악²⁰⁾된다.

4. 종교별 사회복지시설 운영 현황 비교

지금까지 종교계 사회복지의 현황을 살펴보았는데 그 한계점은 첫째, 각 종교별 선행 연구의 조사 시기, 조사 방법의 차이, 그리고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차이로 인해 각 종교별 조사 결과를 근거로 4개 종교의 객관적 비교가 어렵다는 것 둘째, 종교 사회복지 시설 수 대비 종교별 사회복지 시설에 관한 조사 연구 자료가 미비하여 종교별 사회복지 활동 분석에 제약이 많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런 한계점을 감안하여, 상기의 조사 자료를 통해 타종교와 원불교와의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비교한 결과를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1) 종교별 시설운영 분야

종교별 시설운영 분야는 <표 7-1>에서 보는바와 같이 원불교는 타종교에 비하여 노인복지 영역에 많이 집중되어 있고 노인, 아동, 청소년 영역이 85.3%를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다른 영역에의 시설운영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7-1. 종교별 시설운영 분야>

	1순위	2순위	3순위
기독교	아동복지 23.2%	노인복지 11.0%	청소년복지 7.6%
천주교	장애인복지 21.2%	노인복지 16.2%	아동복지 15.1%
불교	아동복지 40.4%	노인복지 27.0%	지역복지 10.7%
원불교	노인복지 51.6%	아동복지 22.8%	장애인복지 10.9%

2) 원불교와 불교의 사회복지시설 지역별 분포

18) 원불교사회복지협의회 2008년 3월 현재 기준. 개원예정 시설 중 7곳을 제외하여 산출함.

19) 166명 중 교무 142명, 도무 16명, 덕무 8명으로 나타남. 시설장이 일반인인 경우는 어린이집을 제외한 사회복지 기관 시설은 6명으로 파악되었다.

20) 원광효도마을 시니어클럽 이용자 수 210명 제외됨.

원불교와 불교의 사회복지시설 지역별 분포를 살펴봤을 때 원불교는 전라도에 시설 분포가 57.1%나 차지하고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는 시설분포가 미비하였다. 반면 불교는 서울, 경상도, 경기지역이 76.7%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제주도, 충청도, 전라도는 상대적으로 시설 분포의 미비함을 보였다.

<표 7-2. 원불교와 불교의 사회복지시설 지역별 분포>

	1순위	2순위	3순위
원불교	전라도 57.1%	서울 13.0%	제주도 6.5%
불교	서울 35.8%	경상도 28.6%	인천, 경기도 12.3%

3) 원불교와 불교의 시설장 성직자 참여 정도

<표 6-1>에서 살펴보았듯이 시설장 성직자 참여 정도에 있어서 불교 63.0%에 비해 원불교는 대부분이 성직자가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종교계의 지원금 정도

<표5-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원불교는 타종교에 비하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금 규모에 있어서, 5백만원 미만 지원에 있어서 36.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5천만 원 이상의 규모에 있어서도 19.5%로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설 지원금이 4개 종교 중에서 가장 취약한 규모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중 약 50%가 연간 2,500만원 이하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종교계내 사회복지 관련 조직

종교계내 사회복지 조직을 살펴보면, 기독교, 천주교, 불교의 경우 각각 최상위의 조직부터 교구별 사회복지 하위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기독교와 천주교의 경우 각각 교회와 본당에 각각 사회봉사부와 사회복지위원회를 두어 운영을 두고 있다. 반면, 원불교는 총부의 산하에 공익복지부가 있을 뿐, 교구별, 교당별 사회복지 조직은 없다. 원불교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체계는 공익복지부의 소속이자, 교구와 운영법인의 체계 하에 동시에 놓여 있는 깔대기 구조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처럼 교구나 최일선 체계(교회, 본당, 말사, 교당)에 사회복지와 관련한 다른 조직 없이 법인 혹은 시설이 존재해 있는 특성을 보인다.

<표 7-3. 종교계내 사회복지 관련 조직>

구분	조직단위(사회복지 관련부서)		
기독교(예장통합)	총회(사회부)	노회(사회부)	지교회(사회봉사부)
천주교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교구 (사회복지국/사회복지회)	본당 (사회복지위원회/사회분과)
불교(조계종)	총무원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본사 (문화사회복지부)	말사
원불교	총부 (공익복지부)	교구	교당

5. 원불교 사회복지시설의 발전을 위한 제언

1) 사회복지시설 운영체계의 개선

원불교의 사회복지활동은 위에서 제시한 원불교사회복지협의회 산하의 시설활동 이외에 공익복지부의 재해구호사업 및 대북지원사업, 봉공회의 봉사활동,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등의 해외구호활동과 청소년 복지 사업으로 그 활동분야를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원불교사회복지협의회 산하의 시설만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다른 영역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던 이유는 각각의 활동이 시설, 법인, 단체별로 분리되어 이루어졌지 이것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보니 관련된 연구와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90년대 이후 시설의 급격한 증가와 사회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시설, 법인, 단체가 독립적으로 시설을 설립하고 활동을 해 나갔을 뿐 이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방향 정립과 시설 및 사업 추진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이에, 운영체계와 관련한 몇 가지 제언을 하자면

첫째, 법인과 시설의 활동 영역에 대한 체제정비가 필요하다. 각 법인과 시설 주요 관계자를 중심으로 TF팀을 조직하여 원불교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미션과 비전에 대한 정립, 지역편중이 심한 법인과 시설의 분포 문제, 미흡한 법인의 재정 지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법인, 단체, 개인의 역할 중복 문제 등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총부-교구-교당으로 이어지는 전달체계 하에서 교구와 교당에 사회복지 관련 체계(가령, 사회복지부)의 신설이 요구되어진다. 가톨릭의 경우, 교구산하에 사회복지회를 조직하여 사회복지, 자원개발, 교육 및 기획, 법인행정 체제를 갖추고 분야별로 전담 직원을 구성하여 교구 산하시설과 유기적 관계를 이루어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설립과 활동이 총부에서 바로 법인이나 시설로 이어지는 전달체계가 아닌 교구별로 그 지역사회에 적합한 사회복지 법인이나 시설의 설립과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교구와 교당별 사회복지 관련 체계의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성직자의 사회복지 전문분야별 인사순환과 재가 교도의 시설장의 비율을 높여나가야 한다. 90년대에 사회복지대상자가 요보호대상자 혹은 클라이언트로 불렸다면 2000년대에는 소비자 혹은 고객으로 불려진다. 즉, 고객의 만족 정도가 시설의 평가로 이어지고 있고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분야별로 사회복지 제도가 급변하고 있어서 사회복지 시설의 전문적 경영을 위해서는 시설장의 가치관, 전문지식, 경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시설 운영 평가 결과는 그 시설은 물론 그 종교의 이미지가 각인되기에 전문적 경영을 위해서는 성직자의 사회복지 전문분야에 대한 인사순환 지침을 마련하여 인사순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타종교에 비해 재가 교도의 시설장 비율이 가장 취약한 것도 큰 문제이다. 법인별로 재가 교도의 시설장 비율제도(안)를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해나갈 필요가 있다.

넷째, 중간관리자 이상 직급의 법인별 인사순환 제도가 필요하다. 법인의 사회복지 사업 목적 구현을 위해 제도상 필요시 중간관리자 이상 직급의 인사순환이 필요할 수 있으나 현재는 같은 법인 하에 있으면서 타 시설로 옮기려면 근무하던 곳을 사직하고 다시 입사해야 하는 여건이다. 이 제도의 실현을 위한 필요조건이 직원 임금표를 동일하게 맞추어야 하는데 사회복지사업의 지역별 임금차이가 있기에 그 제도의 실시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월드비전, 한국복지재단 등은 법인의 인사 명령 하에 인사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체계인데, 이러한 체계로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시설별로 독립적인 사회복지 실천을 법인의 방향성에 입각하여 총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으리라 본다. 물론, 법인 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열악한 인력구조도 동시에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2) 열악한 재정 지원 문제의 개선

2005년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사회복지 시설의 재정은 자체의 자립 정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체의 재정 자립도가 높으면 다행이지만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이 열악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2010년 분권교부세의 보통교부세 전환은 앞으로 사회복지 시설의 재정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 분명하며,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따른 법인의 재정 지원정도가 3년 주기로 있는 시설 재위탁의 결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기에 법인의 열악한 재정 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하자면,

첫째, 앞서 언급한 체제 정비를 통하여 운영 및 발전시킬 시설과 운영을 포기할 시설을 분류화해야 한다. 시설 보유수가 주는 종교의 이미지 보다 시설 이용에 따른 만족의 정도가 종교의 이미지와 교화에 더욱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인의 재정 운영 정도와 법인의 사회복지 실천 목표에 따라 적정 시설 수를 확정하고 산하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열악한 재정 지원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둘째, 월드비전이나, 한국복지재단과 같은 기금확보를 위한 모금 전문기관의 마련을 필수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현재, 모금 전문기관 없이 시설이나 법인이 자체적으로 모금하여 법인이나 시설을 운영하기에 급급한 상태이기에 재정 지원정도가 열악할 수밖에 없다. 앞서 언급한 체제 정비를 통해 법인별로 모금 전략을 세우고 법인의 모금활동 강화를 위해 법인 산하 시설의 모금이 법인의 모금 전략과 함께 병행되어짐으로써 그 시너지를 강화하고 시설의 법인 모금 금액은 또다시 법인을 통해 시설로 배분되어지는 형태로 나아간다면 법인의 재정 지원정도는 현재보다 향상될 것으로 본다.

3) 교단적 차원의 사회복지 재조명이 필요함

1947년 원불교의 교정(教政)으로 교화, 교육, 자선의 3대 목표가 설정되었다. 이미 각종 매체를 통해 자선을 시대에 맞게끔 복지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는 의견이 이미 제시되었는데, 자선과 복지는 분명한 차이가 있기에 교단적 차원에서 사회복지를 재조명해 봄으로써 자선을 사회복지로 전환하는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몇 가지 추가적인 제언을 하자면

첫째, 원불교사회복지연구소가 마련하여 원불교의 사회복지 이념과 실천방안을 정립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영역을 개척해나가야 한다. 사회복지의 전통적인 대상인 노인, 장애인, 아동 등에 그 실천영역을 머무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 약물중독자, 탈북자,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등 사회부적응 대상에 대한 다양한 실천 모델을 제시하고 실업 및 빈곤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연구 제시함으로써 그 위상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종교의 이미지 향상에 노력을 기울려야 한다. 시설 영역별 혹은 국외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높기에 그와 관련한 다양한 상품개발과 연계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원불교에 간접적인 호감도를 높여 나가는 것이 시설의 잠재적 후원으로의 연결과 나아가 교화에 직접적 연결고리가 된다. 뿐만 아니라 교단 내 훈련 프로그램에 자원봉사 영역을 개발·연계함으로써 사회복지 실천에 앞장서는 교도상을 구현해나갈 필요가 있다.